

한국전쟁기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과 의미

차 철 욱*

| 목 차 |

- I. 머리말
- II. 역사적 사건과 재현
- III.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부산의 재현방식인 임시수도와 피란수도를 검토하였다. 재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사실이 끊임없이 현재와 공존한다는 점, 공존하는 과거는 마주하는 현실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기 구성원과 생활공간의 다양성, 이에 따른 피란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시수도의 재현 논리는 대통령 이승만이 거주한 정치 행정의 중심지, 서울에서 피란 온 문화인들의 활동무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도라는 중심화 논리만으로 당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부산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chacw21@pusan.ac.kr

피란수도의 재현 논리는 전쟁에 직면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관계에 주목한다. 당시 부산에는 정부, 유엔, 피란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 가는 에너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아직 피란수도에 대한 세밀한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부산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유산을 전쟁 수행의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그러한 관계가 지닌 부산의 힘을 찾아내는 작업과 연결되어야 한다.

주제어: 임시수도, 피란수도, 재현, 상호관계, 다양성

I. 머리말

오늘날 역사적 사건 혹은 과거사실은 역사연구자만의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공학이나 관광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전통적인 역사 연구자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과거사실에 대한 끈질긴 탐색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대는 문화산업, 관광, 도시개발에서 과거 사실이나 역사적 경험을 소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즉 재현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수익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 모색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역사연구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현실의 요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필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수차례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와 자본이 결합한 회의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역사학자로서 존재감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겠지만, 나 자신이 재현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중

요한 원인이다.

부산의 역사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임진왜란 관련 재현이 대표적이다. 이 작업은 1970~1980년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¹⁾ 충렬사복원을 비롯해 당시 대표적인 전투 지휘자였던 송상헌부사, 정발장군, 윤희신장군의 동상건립, 부산시민의 날 제정 등은 이 시절 부산의 역사에서 임진왜란이 지닌 의미를 짐작케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임진왜란과 같은 갈등의 역사보다 공존의 역사가 부각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설치되는 왜관과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재현되었다. 이러한 관심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2002년 부산박물관 본관이 한일관계 중심 박물관으로 재개관한 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2003년 부산근대역사관 개관은 그동안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회와 근대부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아시안게임, 2005년 APEC 이후 부산을 관광 상품화 하는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한국전쟁은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다. 특히 2015년 부산시가 한국전쟁 부산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전쟁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먹거리까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기본적으로 재현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고, 재현의 이유는 정치적 요소와 관광자원 개발이었다. 과연 시민들로부터 얼마만큼 공감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에서 진행되어 온 한국전쟁 재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고민해 보기 위한 것이다. 2017년 말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1차 관문으로 문화재청 잠정목록에 등재되

1) 양홍숙,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 『지역과 역사』 40, 2017.

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자칫 세계기구가 요구하는 동일화 논리에 빠져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지금의 부산을 만든 시민들의 삶이 역사에 언급되지 못하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보편적 자산으로서 가치 있는 것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한국전쟁 재현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인 점검과 실제로 임시수도/피란수도가 재현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어 온 임시수도 담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적 호명방식으로 제안되는 피란수도의 의미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II. 역사적 사건과 재현

1. 시간의 반복과 재현

재현(再現)이란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이라는 의미이다. 영어 표기 ‘re-presentation’ 또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즉 과거 사실을 현재 시점에 ‘다시’ 드러내는 작업이다. 뜻풀이에 근거해 볼 때 재현은 과거 사실을 원본으로, 다시 나타내는 현재는 원본의 복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현이란 원본과 닮아있는 복사본이라는 의미이다.²⁾ 이런 점에서 재현은 동일성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현의 동일화 논리에는 재현하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정치논리가 잠재해 있다. 우리가 재현의 주체와 목적, 대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

2) 차운정, 『비동일성의 관점에서 본 로컬리티와 표상』, 『한국민족문화』 57, 2015, 335~339쪽.

리 앞에 나타난 재현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현은 아직 역사연구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지 못하다. 오히려 건축, 지리, 관광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연구는 아카데미academic 연구에 집중하면서 퍼블릭public 영역에서는 소홀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박물관, 각종 전시회, 대중 매체로부터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퍼블릭 영역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³⁾ 그동안 퍼블릭 영역이 역사연구에 기대하는 것은 원형의 제공에 지나지 않았고, 재현이나 복원의 실재적인 방향에서는 소외되었다. 최근 복원과 재현에서 원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졌고, 이에 따라 역사연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970년대 학부생으로 가산오광대 복원에 참여했던 이훈상이 당시 복원작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자전적 민족지의 형태로서 증언하고 고백하는 글을 쓴 것은 역사연구자들이 퍼블릭 영역의 연구에 대응하는 자세를 잘 보여준다.⁴⁾

부산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해 왔다.⁵⁾ 문화유적 표석비, 충혼탑 및 충혼비 등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건립, 가로조성 등에도 역사적인 사건을 재현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나 다양한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공간의 장소 찾기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학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광역시 단위나

3) 이훈상, 「상주와 나주의 감영 ‘복원’ 프로젝트와 그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2015, 185쪽.

4) 이훈상, 「탈근대기 무형문화재 정책과 민속 문화의 정치학:가산오광대의 ‘복원’과 창출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적 접근」, 『비교문화연구』 16-2, 2010.

5) 재현의 대표적인 방식들이 기념비 세우는 작업들이다. 이러한 작업을 정리한 글은 표용수, 「釜山地域의 紀念碑 現況(Ⅱ)-解放以後를 中心으로」, 『港都釜山』 15, 1998. 가 대표적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자문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 왔다.

그동안의 반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재현에 대해 과거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복사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간’이다. 역사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과거’라는 시간을 ‘지금’ 연구하게 될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근대적인 시간 개념에 따라 과거를 지나간 시간, 현재와 구분되는 시간으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베르그손 이후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 흘러간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를 구성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흘러간 것인 과거와 과거에 뒤이어 나타나는 현재와 미래를 구분한다. 여기에 베르그손은 ‘시간 지속’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구분되는 이러한 시간의 부분들이 서로의 내부로 스며들며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융합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⁶⁾ 그래서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베르그손은 ‘기억’이라 부른다.⁷⁾ 이후 지나간 시간인 과거와 우리가 직면한 현재, 다가오는 미래는 구분될 수 없이 융합되어 있다는 들뢰즈의 ‘시간의 종합’은 ‘지금’에서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들뢰즈의 시간이론은 개별적인 순간(시간)들의 종합 즉 압축을 전체로 한다. 그에 의하면 과거(예전 현재)는 지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현재(지금 현재)로 돌아와 공존한다. 들뢰즈는 지나간 시간에서 경험한 것들을 잠재적 대

6) 조현수, 『베르그손 <지속> 이론의 근본적인 변화』, 『철학』 95, 2011, 30~31쪽.

7) 조현수, 위의 논문, 39쪽.

상, 현재 당면하게 되는 것을 실재적 대상으로 구분하고, 양자 사이에 끊임없는 반복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관계는 미래(새로운 현재)를 만들어 낸다. 반복에 의해 구성되는 미래는 결코 자기동일성을 갖지 않는 차이체로서 미래를 만든다.⁸⁾ 반복에 의해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반복에 의해 구성되는 현재가 또 다른 차이체인 ‘준안정’의 상태를 만들게 된다. 들뢰즈의 시간이론은 반복에 의해 끊임없이 차이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균형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자기동일성을 해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시간의 종합이란 과거-현재-미래가 상호함축관계에 있다. 즉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항상 현재와 미래와 소통하여 차이체를 만들고, 이것은 역으로 과거를 재구성하게 된다.⁹⁾

이러한 들뢰즈의 시간이론을 퍼블릭 역사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건은 지나가버린 것으로 현재와 구분되고 단절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경험으로서 과거는 잠재적 대상으로 현재의 다양한 조건인 실재적 대상과 상호관계(반복)를 맺으면서 차이체로서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현재는 역으로 과거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은 지금 현재에 그대로 복원될 수 없다. 그것은 무수히 많은 역사적 경험이 잠재적으로 저장되어 뒤섞이면서 경험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특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순간 되살아나기 때문에 과거의 원형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차이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사실의 원형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것이며, 현재 드러

8) 조현수, 『들뢰즈의 ‘차이’의 존재론’과 ‘시간의 종합’ 이론을 통한 그 입증』, 『철학』 115, 2013, 81~94쪽.

9) 조현수, 『들뢰즈의 ‘존재의 일의성’의 두 구성요건인 ‘존재의 공통성’과 ‘존재=차이’는 어떻게 니체의 영원회귀에 의해 동시에 긍정될 수 있는가?』, 『대동철학』 79, 2017, 162~165쪽.

나는 과거사실은 다양한 경험과 조우하면서 변화한 ‘다른 것(차이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현된 것은 원본의 복사본이 아니라 또 다른 차이체인 것이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서 언급한 재현의 의미를 재정의해 보자.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에 근거해 재현이란 단순히 원본의 복사본이라 할 수 없다. 결코 자기동일적인 것이 아닌 이 차이가, 자신을 반복하는 것이 재현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재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열화, 다른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차윤희의 주장¹⁰⁾은 설득력을 가진다. 즉 잠재화된 과거 경험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다가 현실과 마주하면서 발현되는 순간 계열화됨으로써 의미(재현)를 갖는다고 본다. 재현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기존의 재현이 지닌 동일화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근 한국전쟁의 경험과 기억이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재현물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영화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 2014년 개봉)에서 주인공 덕수가 1.4후퇴 당시 업고 있던 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가장(家長)’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건, 이 사실은 덕수의 생활에서 한 순간도 지나버린 과거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 날의 사건과 공존하면서 살았던 덕수는 남동생 학비를 위해 과독광부, 여동생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월남에서 사활을 건 장사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다양한 변신을 하면서도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덕수가 살아가는 현실은 끊임없이 과거를 재소환하여 자신보다는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으로 살도록 강요하였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를 만나 “나 정말 힘들었습니다”라는 하소연은 시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10) 차윤희, 앞의 논문, 354 ~ 355쪽.

반복되고 공존함을 잘 보여준다.

피란민들의 삶을 연구한 필자 또한 그들의 삶이 ‘피란’이라는 사건에 얼마나 지배받는가 하는 것을 경험한다. 명절 때마다 헤어진 가족 생각에 눈물을 흘려야 했거나 지독하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살아야 했던 피란민들에게 전쟁은 현재와 늘 함께했다. 그런데 피란민들 가운데는 자신의 생활여건에 따라 과거의 기억방식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부산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그날의 아픔이 조금은 치유되기도 하였다.¹¹⁾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기억에 개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를 아주 행복할 시절로 기억한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지만, 결혼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전혀 이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2. 전쟁경험의 다양성과 재현

시간과 사건의 경험을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단위이다. 단위에 따라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단위란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즉 개체에 의해 구성되는 조직체를 단위/공간이라 할 수 있다. 개체는 미세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인간이 생활하는 사회와 관련해 분류하면 인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조물, 인간 이외의 자연물과 같은 일차적인 대상을 비롯해 이차적으로 덧붙여지는 사랑, 미움 같은 감정들을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¹²⁾ 들뢰즈

11) 차철욱, 『부산정착 한국전쟁 피란민의 상흔과 치유』, 『지역과 역사』 36, 2015, 336~342쪽.

12) 조현수, 『들뢰즈의 ‘존재론적-윤리학’: 들뢰즈의 ‘정동의 윤리학’과 그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존재의 일의성’』, 『동서철학연구』 78, 2015, 588쪽.

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나름의 의미를 지닌 동등한 차이체로서, 그 내부에는 생명체를 움직이는 힘, 즉 운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논리에 토대를 두고 개체는 내적인 추동력에 의해 다른 개체들과 상호작용(관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규모가 큰 단위(전체)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개인, 가족, 마을, 공동체, 계모임, 지역 등 다양한 단위가 만들어진다. 일정한 단위, 즉 부산시라는 행정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의 구성은 다양한 개체 혹은 하위단위의 상호작용 결과이고, 이 단위들은 각기 독자적인 자기 운동성을 가지는 차이체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다양한 차이로 가득찬 다양성과 다층성, 복합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개체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연물이나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가 역으로 인간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개체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공간을 매개로 한 역사연구에서 다양성과 차이성을 지닌 개체와 그러한 개체들 사이의 관계/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의 다양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경험이 단위에 따라서도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마을로 간 한국전쟁』(박찬승, 돌베개, 2010년)은 한국전쟁이 국군과 인민군, 연합군과 중공군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작은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마을이 경험한 전쟁은 마을에 잠재해 있던 전통적인 신분제, 지주제, 씨족간 갈등, 마을간 갈등 등이 현실의 전쟁 상황과 마주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준다.¹³⁾ 이러한 양상은 공간/단위에 따라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역사

13)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10~11쪽.

적인 경험의 차이로 구성되는 잠재성이 동일한 사건과 만났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역사적 경험의 재현이나 재현연구를 위해서는 시간의 반복과 차이, 구성요소 즉 다양한 개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당시 부산과 구성원들의 경험을 점검해보자.

필자는 피란민 개인의 정착과정에 주목하기 위해 마을을 단위로 연구하였다. 부산에는 한국전쟁 피란민이 정착한 공간이 아주 많다. 그 가운데 필자는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 진구 당감동, 부산 남구 우암동, 부산 중구 국제시장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에는 행정구역 부산을 구성하는 하위단위로서 이들 공간은 각기 독자적이고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아미동은 1907년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 공동묘지였고, 당감동은 인근의 가야역 화물 수송용 말 막사가 위치했으며, 우암동에는 1909년부터 일본으로 조선 소[牛]를 수출하는 ‘부산 항검역소’가 설치되어 해방 직전까지 운영되었다. 일제강점기 공간이 지닌 경험의 차이와 전쟁 상황이 맞물리면서 피란민 마을이 탄생하였다. 우암동 소막사에는 넓은 공간이라는 장점 때문에 부산시 ‘적기피란민수용소’가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시설도 갖춰졌다. 당감동은 가야역 말 막사가 위치한 이유로 철도 관련 공무원들이 우선 피란하면서, 인근으로 피란민 마을이 형성되었다. 아미동은 일본인 무덤에 피란민들이 이주해, 자연환경이나 사회적인 이미지가 나빴으나 부산 중심지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요인이 피란민 정착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산시 하위단위의 피란민 정착지는 공간이 지닌 경험의 차이, 이후 주변 환경의 차이로 각 공간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공간 단위 분석 결과 동일 공간에 정착한 피란민이라 하더라도 피란

과정이나 정착과정에서의 경험은 다양하였다. 이북에서의 생활공간, 생활수준, 교육수준, 피란이유 등을 비롯하여, 피란과정 또한 선박이나 기차 등 교통편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육로를 걸어서 내려오는 경우 등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에 정착하는 방식도 곧바로 부산으로 들어오는 경우, 거제도 등 외지를 경유하는 경우, 서해안에 정착했다가 재이주하는 경우 등등이다. 피란을 혼자 했는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했는지, 가족의 일부만 같이 오고 일부는 남겨뒀는지 등도 달랐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노인인지 어린이인지 등 성별 연령별로도 당시를 기억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피란민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과정도 다양했다.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남의 집을 빌리기도 하고, 불법으로 판잣집을 짓기도 하였다. 판잣집 재료는 나무 합판, 양철, 종이박스, 가마니 등 다양하였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 방식도 다양하였다. 마을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막노동, 운송, 노동자, 사업, 공무원 등등 다양하였다.

사회적인 재앙도 경험해야 했다. 부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화재였다. 공식자료에 의하면 우암동이나 국제시장 화재는 피란민들의 사기를 꺾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상하수도 문제, 화장실 문제 등 사회시설 관련 기억도 풍부하게 남아있다.

피란민들의 현지 정착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관계였다. 마을 공간을 매개로 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계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계모임은 출신 지역, 정착공간, 사회생활 등 다양한 계기에 따라 형성되었다. 관계의 형성은 피란민들이 장소에착을 가지게 하면서 정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계모임은 우암동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남성 중심의 가부장질서로부터 억압 받는 여성들이 삶의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도 하였다.¹⁴⁾

14) 차철욱, 『부산지역 피란민 유입과 피란민 공간만들기-우암동 피란여성을 중심으로』,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열화와 의미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보다 특정 공간을 구성하는 (내외부)개체들이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고 작동했는지, 이러한 상호작용에 시간과 공간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재현은 특정 장소를 매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끌어 올려 공유 또는 공통된 장소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장소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재현은 동일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소정체성은 구성원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구성원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소외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준다. 그래서 장소정체성은 구성원에게 안전망 역할을 한다.¹⁵⁾ 안전망으로서 장소정체성은 때로는 외부에 의한 동일화 논리에 저항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소정체성은 장소가 지닌 다층적인 측면을 무시한 결과 배타성과 차별성의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¹⁶⁾ 우리가 동일화 논리를 지향하는 재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장소정체성 논의를 뛰어넘는 장소성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제안한 시간의 반복과 차이체의 생성, 공간과 공간 요소들이 지닌 다양성과 다층성 등을 고려한 재현이 필요하다.

『석당논총』 63, 2015, 264쪽.

15) 최병두,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대규모적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공간과 사회』 35, 2011, 223쪽.

16) 차철욱, 「장소성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 2017, 222~224쪽.

Ⅲ. 임시(피란)수도 부산의 재현

1. '임시수도'의 재현

부산에서 한국전쟁기를 재현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1984년 '임시수도기념관'이 개관되면서 임시수도의 경험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국전쟁기 부산과 관련해서 왜 '임시수도'가 부각되었을까. '임시수도'는 정부 기구로 명명된 적은 없다. 다만 행정중심기능인 수도가 임시로 위치했다는 의미로 언론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불렀던 명칭이다.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천도는 전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인과 유엔기구 등과 연계를 위한 연합군사령부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연합군 사령부로서는 최후의 승리를 위한 총공격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중에 대규모의 작전이 가일층 필요하게 된 것이요 그러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일반 행정도시 보담도 작전상 필요한 군경이나 교통□□을 완비하는 장소로 정해 가지고 一擧에 대결할 확호한 근본 방침을 세우게 되었으므로 직접 작전에 관계없는 모든 행정기구는 천도하기까지 잠시 자리를 부산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게 된 것이다... 우리 민국정부가 부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작전상의 중대한 이유로 그리 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하여 처음부터 노력하여 온 UN한국위원단 본부가 부산에 있어서 정부와 여러 가지로 긴밀히 연락을 취해야 하게 되었으며, 더욱 수백만 전쟁동포를 위한 구호물자와 파괴된 도시들의 재건계획에 대한 진행 등 허다한 사무처리에 있어 막대한 편리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무 운영상 관계로 정부기관은 수 일 내로 부산으로 즉시 천도하기로 작정한

것이다.¹⁷⁾

위 기사는 이승만대통령이 수도를 대전('50.6.27.~7.16), 대구('50.7.16~8.18)에서 부산으로 옮기게 되는 이유를 밝히는 연설문 내용이다. 행정기구의 이전은 유엔한국위원단과의 긴밀한 협력, 전쟁복구의 편리가 주요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 부여된 임시수도라는 행정적 기능은 전쟁복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는 전쟁복구를 위한 행정기구가 임시로 이전한 수도였다.

전쟁 이후 '임시수도 부산'은 서울과 부산 어디에서 발행된 언론인가에 관계없이 비슷한 서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쟁 당시의 정치 경제 관련 회고담이나 기획시리즈, '○○비화' 등을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임시수도'가 자주 등장하였다. 특히 1960년대 1970년대 정치 경제는 한국전쟁 당시와 관련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사에서 임시수도 부산은 어느 기획시리즈의 제목처럼 '약몽'으로 묘사되었다.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잊고 싶은 장소였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이후 부산에서는 임시수도였던 당시를 재현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에서 공식적으로 '임시수도 부산'이 재현된 사건은 임시수도기념관의 개관이었다. 이 건물은 1926년 건축되어 1983년 경남도청이 경남 창원으로 이전할 때까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기간 동안 대통령 이승만의 집무공간인 경무대로 활용되었다. 부산시는 이 건물을 매입하여 반공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임시수도기념관'으로 이름 붙였다. 이 기념관의 재현의미는 개관일 참석했던 귀빈과 전시내용에서 좀 더 명확히 찾을 수 있다.

17) 『대구매일』 1950. 8. 19., '이승만 대통령, 정부기관 부산 이전에 따른 성명을 발표' (자료대한민국사 제18권).

6.25로 인한 혼란과 격동의 3년 동안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었던 부산 서구 부민동 3가 22 구경남지사관사가 「임시수도기념관」으로 단장되어 6.25 34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상오 11시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崔鍾鎬 부산시장을 비롯 이승만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 부부, 재부기관장, 문화위원 및 문화재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건물 입구 정면에는 통일을 염원하고 수복환도를 되새기는 뜻으로 사빈당(思邠堂)이라는 현판도 달았다. …기념관 1층에는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부산도착, 외국군의 부산진주, 인천상륙작전, 노천교실수업 장면 등 당시의 모습이 담긴 사진 1백 20장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집무할 때 사용했던 야전용 목침대, 책상, 의자 등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으며 벽에는 이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 뒤쪽엔 이대통령이 환도를 그리위하며 직접 쓴 한문 자작시가 6폭짜리 병풍에 담겨있다.¹⁸⁾

개관 당시 임시수도기념관의 전시내용을 잘 보여준다. 먼저 개관 때 이승만대통령의 가족들이 참가했고, 이들의 여비지출¹⁹⁾을 부산시가 담당했던 것, 그리고 이승만의 환도와 수복의지를 담아 역사학자 정중환이 짓고 한형석이 쓴 <思邠堂> 현판이 걸렸다는 점, 전시공간에는 전부 이승만 관련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시수도기념관은 ‘대통령 이승만’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시수도’ 재현은 대통령 이승만과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 의미를 강조하였다. 기념관은 시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방문객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전시 콘텐츠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 2002

18) 『부산시보』 1984.7.2., ‘임시수도 기념관 개관’.

19) 부산직할시, 『임시수도기념관개관참석 고이대통령 유족 여비지출』, 1983(국가기록원 소장, BA0156212).

년에 전시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했으나, 여전히 대통령 이승만을 전시의 중심에 두었다. 대통령 이승만의 생활과 관련해 서재, 거실, 내실, 조리사실, 경비실, 집무실 등으로 한국전쟁 당시 경무대의 기능에 맞춰 재조정되었다는 것과 2층 전시공간에 피란민의 생활을 추가한 것이 변화였다. 서재 입구에는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써서 걸어둔 ‘敬天愛人’ 족자를 그대로 재현했고, 서재 내부는 서울 이화장의 서재를 재현하고, 이승만 인형과 사진을 걸었다. 회의실에는 회의용 탁자와 한국전쟁 당시 장관 임명장 수여와 릿지웨이 사령관 접견 사진을 붙여 당시 이승만의 업무 공간임을 표현하였다.

이 무렵에도 임시수도기념관의 재현은 여전히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에 놓고, 한국의 중심지로서 부산이 강조되었다. 2002년에 임시수도기념관이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한국전쟁기에는 임시수도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당시 정치 경제 국방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중심지 역할”²⁰⁾을 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당시 부산시가 임시수도를 ‘한국의 중심’이었던 경험을 재현하고자 했던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전쟁 임시수도가 중심의 역할을 담당한 또 다른 요소는 문화분야였다. 부산시 중구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문화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밀다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가 작품의 소재로 삼을 정도로 한국 문화의 표상 공간이었다. 2003년 2월에 개관한 ‘40계단 기념관’은 임시수도 시절 중구가 한국 문화의 중심이었음을 재현하였다. 기념관의 전시는 모두 5개로 구분되었다. 전시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부산일보』 2002.2.14.,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문화재 지정 예고’.

40계단 기념관 전시내용

번호	구분	내용
01	중구연표	1876년 개항 이전부터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 등 중구의 형성과정과 역사이야기
02	중구와 피난민	광복 전후 및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부산의 혼란스러웠던 모습과 삶의 애환이 구구절절 묻어나는 피난살이에 얽힌 추억들
03	전란속 학구열	노천교실에서도 뜨거웠던 수업 열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 나갔던 천막교실
04	40계단	피난시절의 애환과 설움을 상징하는 40계단, 대중가요와 영화 속에 등장한 40계단
05	전란속 문화예술 활동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모습

자료: 부산광역시 중구, <추억과 미래가 있는 40계단문화관>(홍보팸플렛)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념관 전시의 핵심은 전시관 중앙에 배치된 천막교실과 ‘문화의 중심 중구’의 재현이었다. 2005년 40계단문화관과 중구청이 (사)부경역사연구소에 의뢰한 ‘피란시절, 부산의 문화’ 연구지원사업은 부산 중구가 임시수도를 재현하려 했던 방향을 잘 보여준다.²¹⁾ 이 사업은 한국전쟁기 중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각종 문화관련 활동과 문화인들에 대한 조사 정리였다. 부산으로 모여든 문화인들 특히 서울 출신자들에 대한 조사는 부산 중구가 한국전쟁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연구지원사업을 토대로 『피란시절 부산의 문화』(2006년)가 출판되었다.

한국전쟁기 정치 행정과 문화 중심지로서 임시수도 부산 이미지는 관광산업과 연계되었다. 부산시가 부산 문화의 관광자원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었다. 2002년 1차 향

21) 『부산일보』 2005.11.29., ‘금강다방 부민관…궁핍은 예술로 피었네’.

토음식의 선정, 2009년 2차 향토음식의 선정은 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특히 2차 향토음식으로 돼지국밥이 선정되면서 탄생배경이 된 한국전쟁은 부산의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되었다.

이 무렵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유산 등 암울했던 역사적 자산을 관광 상품화 하는 다크 투어리즘이 부산에서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과 고통관련 장소를 여행하는 관광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²²⁾ 부산에서 한국전쟁이 관광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5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과 관련이 깊다. 특히 부산시는 2005년을 부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볼거리 발굴에 집중하였다. 이 해에는 부산에서 APEC정상회담이 열렸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체제를 혁파하고 지방이 각기 특색에 맞는 균형적 발전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²³⁾ 한 언론은 APEC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제2 도시에 머물지 말고, 과거 임시수도, 1970년대 수출 주도로 번성했던 부산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아시아 태평양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 세계도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²⁴⁾ 한국전쟁 당시 중심지였던 임시수도의 경험은 관광산업을 매개로 한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또 다시 중심화를 지향하는 아이콘으로 작동하였다. 1960~70년대 한국경제의 중심이었던 부산이 1990년대 이후 침체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영광을 찾고자 하는 소망이 이런 중심화 논리를 지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2000년 중반을 지나면서 근현대 유산을 대상으로 한 관광코스개발이

22) 장성근·강동진,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Dark Yourism)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2, 2017, 66쪽.

23) 『부산일보』 2004.7.1., ‘(밀물썰물) 부산 방문의 해’.

24) 『부산일보』 2005.9.9., ‘(성공! APEC 희망! 지방시대) 역동의 부산, 날개를 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원도심에 위치한 문화시설이나 문화단체들이 주도하였다. 부산근대역사관에서 기획한 ‘근대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이 이런 분위기를 이끌었다. 40계단기념관, 부산근대역사관, 용두산공원, 보수동 헌책방골목, 옛 경남도청, 임시수도기념관 등은 관광객들의 관심대상이었다.

임시수도와 관광상품화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가 서구청에서 추진한 ‘임시수도기념거리’ 조성사업이다. 2009년 한국전쟁 당시 정부종합청사로 사용되었던 옛 경상남도청이 동아대 부민캠퍼스(동아대 박물관)로 재단장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 서구는 2010년 임시수도기념관과 임시정부청사(동아대 박물관) 주변에 ‘임시수도기념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곳은 과거 법원과 검찰청이 위치해 경기가 활발했으나, 이 시설이 2001년 연제구로 이전하면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이곳이 동아대 부민캠퍼스로 재단장되면서 상권 회복의 가능성을 보이자,²⁵⁾ 기초자치단체인 서구청이 ‘임시수도’를 이용한 것이다. 서구는 임시수도기념거리에 장터풍경, 천막학교 등 피란민의 생활을,²⁶⁾ 임시수도기념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지도자’와 ‘민초’를 형상화한 조형계단을 만들었다. 서구는 ‘지도자’ 형상을 위해 이승만 동상과 ‘대통령의 딸’을 새겨 넣는 사업까지 추진하였다.²⁷⁾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정치행정의 중심지, 특히 이승만의 강조는 지역민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2011년 임시수도기념관 앞에 세워진 이승만 동상에 붉은색 페인트가 뿌려진 사건,²⁸⁾ 임시수도기념관을 이승만기념관으로 조성하려는 부산시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²⁹⁾은 임시수도의 재현이 목적으로 한 대통령

25) 『부산일보』 2009.03.05., ‘활기 넘치는 거리...“이젠 대학로 시대”’.

26) 『부산일보』 2010.02.22., ‘부산 임시수도 기념거리 ‘첫 삽’’.

27) 『부산일보』 2009.10.26., ‘부산 부민동 일대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28) 『부산일보』 2011.06.08., ‘부산 서구, 페인트 봉면 이스안 동상 처리 고심’.

29) 『부산일보』 2011.06.02.,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이승만기념관 추진 논란’.

이승만과 정치 행정의 중심지 논리에 대한 다른 목소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관광자원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남구청이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한 ‘유엔평화문화특구’ 조성,³⁰⁾ 동구청이 범일동에 ‘이중섭거리’³¹⁾ 조성 등은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투어리즘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사건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이 함께 재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2. ‘피란수도’의 재현

‘피란수도’ 개념은 부산시가 2015년 7월 한국전쟁 당시의 흔적을 간직한 부산지역 근대 건축·문화자산의 유네스코(UNESCO)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사용되었다. 이전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개념이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입시수도’ 대신 ‘피란수도’를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부산시가 2016년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내용을 인용해 보자.

긴박한 전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는 대전(1950.6.27~1950.7.16), 대구(1950.7.16~1950.8.18)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산을 피란수도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정부 기능과 국민 안전 유지’였다. 국토의 최남쪽이라는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여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전쟁 중 피란민들을 보호하는 등 정부 기능의 일관성과 국민의 심리적 안정이 필

30) 『국제신문』 2020.06.20., ‘전쟁의 유산을 교육, 관광 자산으로’.

31) 『국제신문』 2015.08.20., ‘(강동진 칼럼) 사람의 도시, 부산이 기억하고 품어야 할 ‘그 사람들’’.

요했다. 두 번째 이유는 ‘항구도시 부산은 군사 방어 요충지’였다. 194만 명의 유엔군과 5,500만 톤 이상의 군수물자 입항 및 하역작업이 유일하게 가능했던 부산항은 수도 선택의 핵심 이유였다. 그리고 도심부와 연결된 2km 이내에 존재했던 항구와 철도의 연결성은 물자 수송을 위한 병참기능의 최적 조건이었다. 이의 근거는 정부천도관련 당시 국무회의록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³²⁾

위 인용문에 근거해 볼 때 피란수도는 전쟁 극복을 위한 정부기능의 유지와 국민의 심리적 안정, 항구라는 특성을 활용한 병참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피란수도가 정치적, 군사적 기능의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피란수도는 전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 기능을 하는 중심지 정도로 설명 가능하다. 임시수도와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2016년 잠정목록 등재가 실패한 뒤 1년간의 준비를 거친 뒤 2017년 12월 다시 신청한 신청서에는 피란수도의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다.

피란시기의 부산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국가의 중심기능이 옮겨옴에 따라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기능을 하였다. 1953년 8월 15일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며 피란수도로서의 기능은 끝이 났지만 피란민과 함께 전후복구를 위한 사업과 함께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도시였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초로 참전한 유엔의 젊은 용사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인류에의 실현 장소로 기억되고 있다.³³⁾

32) 부산광역시, <6·25전쟁기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6.

33) 부산광역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7.

2017년 신청서에서 피란수도는 피란시기 국가의 중심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점은 2016년 신청서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피란수도가 종료된 이후 피란민들이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을 이룬 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2017년 신청서에서 피란수도는 국가기능의 중심이라는 점과 피란수도 시절 부산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관계)을 통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임시수도 담론에서는 국가기능의 이전과 복귀만이 강조되고, 임시수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와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피란수도란 정부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역량을 축적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이 차이이다. 그래서 피란수도는 임시수도와 달리 수도기능이 빠져나가도 부산이라는 도시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자기운동성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란수도 부산은 단순한 정부기능만이 아니라 유엔의 국제적 지원기능, 피란민들의 생활 등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심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는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구성요소의 상호작용(관계)에 의해 부산의 로컬리티, 부산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임시수도와 피란수도는 한국전쟁기 부산을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와 이 시기 부산을 구성하는 주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임시수도는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한 한국정치의 중심, 공간적으로 중앙 중심의 시선이고 주체 또한 이곳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피란수도는 당시 부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들의 관계(상호작용)에 기초해 부산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국전쟁기 부산이 중앙에서 내려온 정치 문화적 중심인물이 주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부산에 모여든 모든 구성원들이 만드는 공간이라는 인식의 차이이다. 따라서 대통

령 이승만이 빠져 나가도 부산은 피란수도 시절 구축된 에너지에 의해 이전과 다른 도시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피란수도의 이해방식에 따라 2017년 신청서는 피란수도 부산 유산을 ‘공공협력유산’과 ‘국제협력유산’으로 구분하여, 전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국민, 국제연합 등 다양한 요소들의 협력과 관계가 중요하게 작동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³⁴⁾ 하지만 2017년 신청서에 포함된 피란수도 부산유산³⁵⁾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서는 앞서 정리한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개별적인 유산이 지니는 고유의 역할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유산을 둘러싼 당시 부산에서 생활했던 다양한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유산이 피란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러한 역할에 대해 피란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러한 관계가 피란을 극복하고 현재와 연결된 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정리되어야 할 내용이다.

재현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요소는 시간의 반복과 차이, 개체들의 다양성과 상호관계(작용)이다. 피란수도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재현되어야 한다. ‘피란수도’의 개념화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 최근 피란수도 유산의 잠정목록 신청과정에서 구성되는 개념 또한 한계가 있다. 피란수도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면서, 많은 사업들이 ‘피란수도’를 사용하면서도 개념에 어울리는 사업보다는 기존 ‘임시수도’와 명칭만 달리할 뿐 유사한 사업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부산시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피란수도 재현을 시도하고 있다. 임시수도기념관과 동아대학교박

34) 부산광역시, 위의 신청서, 5쪽.

35)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국립중앙관상대(부산지방기상청),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근대역사관), 부산항제1부두(부산항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지상군사령부(위커하우스), 유엔요지(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

물관(임시수도정부청사)은 한국전쟁기 임시정부의 핵심시설이었던 관계로 이와 관련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아대학교박물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특히 ‘피란수도 부산 야행’은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행사 기획은 피란수도의 “스토리와 재미”³⁶⁾를 제공하는 데 머물고 있다. 흥미로운 볼거리 먹을거리만이 피란수도 재현의 목표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임시수도기념관은 2012년 기존 공간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전쟁만을 소재로 한 전시를 추가하였다. 한국전쟁 일반, 피란학교, 전시 예술의 중심지 부산, 정치 행정의 중심지 부산 등을 대주제로 전시하였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전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현의 방식에서는 기존 임시수도의 의미를 계승한 한계를 지닌다. 그렇지만 임시수도기념관은 상설전시 이외 특별전이나 학술조사 및 총서 발행³⁷⁾을 통해 전쟁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피란수도의 경험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전쟁이라는 사건, 이를 경험한 구성원들의 생활과 네트워크 등은 지금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 2017년 12월에 재개관한 40계단기념관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40계단기념관은 부산 중구가 드러내고 싶은 ‘문화중심지’의 이미지가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공간과 구성원들을 드러내고 있다.³⁸⁾

공간적으로는 40계단으로 한정하면서, 피란민들의 주거 및 생활공

36) 『부산일보』 2016.06. 07., ‘동아대 석당박물관 야행프로그램 ‘피란수도 부산 야행’ 성료’.

37) 대표적인 활동으로 『부산 밀면이야기』(2013)과 『우암동 사람들의 공간과 삶』(2014)을 들 수 있다.

38) 40계단기념관, <그날, 그곳, 그들의 이야기>(전시팸플렛)

간, 문화예술, 교육현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시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활모습을 담고, 그리고 한국전쟁 경험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사업인 또따또가 사업과 연계 짓는 방식에서 피란수도 재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피란수도’ 개념의 사용과 재현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피란수도 개념을 전쟁복구의 중심기능과 다양한 구성요소의 관계, 즉 부산을 움직이는 새로운 로컬리티의 재구성과 연관짓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재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재현방식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재현방식인 임시수도와 피란수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산은 한국전쟁 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 유엔 등의 기구뿐만 아니라 피란 온 피란민들로 구성된 도시였다. 부산에 들어온 사람들의 전쟁 경험은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설명될 수 없이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험은 지금까지 반복되면서도 그때그때 직면하는 상황과 결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재현되어 왔다.

이러한 과거사실의 재현과 관련해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시간의 반복과 차이의 강조였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사실이 끊임없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공존한다는 사실, 그렇지만 과거사실이 불려나오는 계기인 현실의 차이 때문에 반복되는 과거는 끊임없이 다양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피란민들의 피란동기, 피란과정, 정착과정, 피란생활 등에 따라 개

인적으로도, 개인이 구성하는 공간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의 반복과 차이의 생산, 특정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는 재현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부산에서 진행된 ‘임시수도’의 재현은 대통령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치 행정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재현해왔다. 임시수도기념관, 동아대박물관 등 공공기관의 복원 및 재현, 임시수도를 부각시키면서 대통령 이승만을 재현하려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 문화의 중심지를 재현한 40계단기념관 등은 부산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논리찾기 방식으로 역사적 사건에선 ‘중심의 노리’를 소환하여 드러내었다. 이러한 인식은 부산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과거의 영광, 즉 중심을 희망하는 담론의 형성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논리만으로 당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한국전쟁 당시 부산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제안되는 ‘피란수도’는 기존 임시수도에서 강조한 정치 행정의 중심 기능만이 아니라 전쟁복구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의 역할, 이들의 상호관계가 만들어 내는 부산의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이 1960~70년대 번영을 누리는 계기가 한국전쟁 당시 형성된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된 로컬리티 때문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전쟁 당시 존재했던 행정기능이나 유엔기능이 빠져나가도 제 스스로의 작동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피란수도’ 재현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역사연구는 과거사실의 풍부한 실증과 이러한 과거사실이 지금 여기서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는 데 있다. 한국전쟁 부산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유산을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그러한 관계가 지닌 부산의 힘을 찾아내는 작업과 연결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 양홍숙,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 『지역과 역사』 40, 2017.
- 이훈상, 「상주와 나주의 감영 ‘복원’ 프로젝트와 그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2015.
- _____, 「탈근대기 무형문화재 정책과 민속 문화의 정치학:가산오광대의 ‘복원’ 과 창출에 대한 자전적 민족지적 접근」, 『비교문화연구』16-2, 2010.
- 장성곤·강동진, 「지속가능한 다크 투어리즘(Dark Yourism)의 개념 정의와 전개과정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2, 2017.
- 조현수, 「들뢰즈의 ‘존재론적-윤리학’:들뢰즈의 ‘정동의 윤리학’ 과 그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존재의 일의성」, 『동서철학연구』 78, 한국동서철학회, 2015.
- _____, 「들뢰즈의 ‘존재의 일의성’의 두 구성요건인 ‘존재의 공통성’과 ‘존재=차이’는 어떻게 니체의 영원회귀에 의해 동시에 긍정될 수 있는가?」, 『대동철학』 79, 2017.
- _____, 「들뢰즈의 ‘차이의 존재론’과 ‘시간의 종합’ 이론을 통한 그 입증」, 『철학』 115, 2013.
- _____, 「베르그손 <지속> 이론의 근본적인 변화」, 『철학』 95, 2011.
- 차운정, 「비동일성의 관점에서 본 로컬리티와 표상」, 『한국민족문화』 57, 2015.
- 차철욱, 「부산정착 한국전쟁 피란민의 상흔과 치유」, 『지역과 역사』 36, 2015.
- _____, 「부산지역 피란민 유입과 피란민 공간만들기-우암동 피란여성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63, 2015.
- _____, 「장소성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 2017.
- 최병두, 「일본 외국인 이주자의 다규모적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공간과 사회』 35,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 표용수, 「釜山地域의 紀念碑 現況(II)-解放以後를 中心으로」, 『港都釜山』 15, 1998.

2. 기타 자료

『대구매일』 『부산시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직할시, 『입시수도기념관개관참석 고이대통령 유족 여비지출』, 1983(국가기록원 소장, BA0156212).

부산광역시 중구, <추억과 미래가 있는 40계단문화관>(홍보팸플렛).

40계단기념관, <그날, 그곳, 그들의 이야기>(전시팸플렛).

부산광역시, <6·25전쟁기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6.

부산광역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7.

투고일 : 2017.11.9. **심사완료일** : 2017.12.5. **게재확정일** : 2017.12.20.

| Abstract |

Representation and Meaning of the Temporary Capital the
Wartime Capital of the Korean War

Cha, Chul-Wook

This study examines the temporary capital and the Wartime capital,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Busan during the Korean War. Pusan was a city composed of refugees as well a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to carry out wars during the Korean War. The war experience of those who came to Busan was diverse and complex, which could not be explained simply and uniformly. And the experiences of this period have been re-present before us in various ways in combination with the situations that have been repeated until now.

To study re-presentation, we must keep in mind that past facts are constantly coexisting with the present, and that coexisting past changes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context of facing reality.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Korean War members and living spaces, and the complexity of the experience.

The re-presentation logic of the temporary capital is an emphasis on the activity stage of the cultural leaders in Seoul, the center of political in which President Rhee resides. This logic i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discourses that hope for the glory of the past, the center, as the status of Busan fall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ing multi-layered and complex Busan at that time with only the centralization logic of the capital.

The re-presentation logic of the Wartime capital focuses on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various elements facing the war. At that time, various elements interacted to form new Busan. This is called the locality of

Busan. In the 1960s and 1970s, Busan could become a source of strength to grow. However, there is still no detailed conceptualization of the Wartime capital.

In order to register the Korean War Busan legacy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eaning of each individual heritage in relation to various elements of the war.

keyword: the temporary capital, the Wartime capital, re-presentation, the interrelationship, the diversity

